



웹젠, ESG나눔기업패 4년 연속 수상

웹젠이 청소년 코딩 교육 격차 해소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2026 ESG나눔기업패'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웹젠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ESG나눔기업패를 받으며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웹젠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은 성남시청소년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코딩 공작소 위드 웹젠'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 중이다. /웹젠



케이뱅크, 취약계층 아동 나들이 지원

케이뱅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K-joyful 아동·청소년 나들이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아동들의 체험활동 경험 격차를 완화하고,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케이뱅크



남부발전, 텍사스 전력시장 진출 기반 강화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현지 파트너사와 손잡고 북미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강화한다. 텍사스 전력시장(ERCOT)의 전력거래 역량을 내재화해 현지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22일 미국 에너지 전문 기업인 헌트 에너지 네트워크(Hunt Energy Network, 이하 HEN)사와 '텍사스 전력시장 전력거래 시스템 교육훈련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

동화약품, 송우를 신임 연구부문장 선임

동화약품이 연구개발(R&D) 전문가를 영입해 미래 성장 동력을 다지고 있다. 동화약품은 신임 연구부문장으로 송우를 이사(사진)가 합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송우를 이사는 의약품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무 경험과 연구조직 관리 역량을 갖췄다. 송 이사는 2007년 경동제약 제제연구실 연구원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이후 경동제약 신제품연구실 개량신약팀 파트장, R&D 센터 제제연구부 제제1팀 팀장, 제제연구부 수석팀장 등을 역임해 다양한 제형 개발과 제품화 경험을 쌓아왔다. 2021년에는 유유 제약에서 제제연구1팀 팀장을 맡았고, 2025년부터는 제제연구실장으로 재직하며 연구 조직 전반을 이끌었다. /이창하 기자 mlee236@



인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부장 김승길 △산학협력단 산학지원부장 김상일

부음 ▲김옥자 씨 별세, 윤승연(국립현대미술관 홍보관) 씨 모친상=26일 오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8일 오전 5시40분. 02-857-0444

LG, '쉬었음 청년' 1000명 직무교육으로 재도약 돕는다

하반기 '렛츠 그로우 위드 LG' 운영 전자·화학·디스플레이 3개사 참여 AI·제조·디지털마케팅 실무 교육

LG가 취업 준비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Let's Grow with LG(렛츠 그로우 위드 LG)'를 새로 만들고 올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6년 전쟁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이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이 직업훈련·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청년이 신청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예산은 1000억 원이며 참여 청년에게 교통비·식비 명목으로 월 30만~5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기업에도 시간당 1만4000원~2만 원의 훈련



LG전자 여의도 트윈타워 사옥 전경. /LG전자

비를 지원한다. 현재 삼성·SK·현대차·LG 등 10대 그룹을 포함해 70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정부는 올해 6월 중 1호 아카데미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 등 3개 계열사가 참여해 AI·생산·제조·디지털마케팅 분야 직무 교육과 실전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신입사원 수준의 실무 지향형 교육 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재도

약과 빠른 취업을 돕는 것이 목표다.

계열사별 정원과 교육 지역은 구분됐다. 가장 많은 700명을 맡는 LG전자는 경기 평택과 대전·대구·부산 등 4개 거점에서 AI 및 스마트팩토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현업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AX(AI 전환)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한다. LG화학은 200명을 선발해 경기 오산과 전남 여수에서 석유화학·바이오사업 실무를 가르치며 AI 코딩 기반 업무 자동화 교육을 거쳐 사내 AX 전문가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경기 파주에서 100명을 교육하며, 국가첨단산업으로 지정된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특화 훈련에 집중한다.

지역 균형도 고려했다. 전체 정원의 절반인 500명을 대전·대구·부산·여수 등 비수도권에 배정해 수도권 집중을 피했다. 3개 계열사는 직무교육 외에도 현지 자멘토링,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구직 준비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LG가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 인재 육성 사업과도 연결된다. LG 에이머스(Aimers)는 2022년 하반기에 시작해 올 상반기까지 참가자 2만 명을 넘어선 청년 AI 인재 교육 프로그램으로, LG는 2030년까지 누적 5만 명 이상의 청년 AI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에이머스는 AI 기초 지식과 코딩 역량을 갖춘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운영하며, AI 대학원 수준의 강의부터 채용 지원 활동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Let's Grow with LG'는 에이머스가 AI 역량 개발에 특화된 것과 달리, 제조·화학·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현업 직무 전반으로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구광모 LG 대표가 평소 강조해온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경영 철학이 이번 프로그램에 반영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넥센타이어, 서킷 체험형 모터축제 개최

30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에서 열려 주행 클래스·동승 프로그램 운영

넥센타이어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와 공동으로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을 오는 30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연간 5라운드 운영되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 고객 체험 중심의 '브랜드 경험 마케팅'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대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대회 참가자가 직접 차량을 주행하는 주행 클래스, 전문 드라이버와 함께 서킷을 체험하는 동승 프로그램, 그리고 차량 전시·푸드 트럭·스탬프 투어 등 관람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다.

대회 참가자들이 직접 주행하는 클래스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종목인 타겟 트라이얼(주어진 타겟 타임에 가장 근접한 랩타임 기록)과 짐카나(콘 장애물 코스를 최단 시간에 통과하는 모터스포츠) 코스로 운영된다.

가족 단위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승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서킷 택시·짐카나 택시·서킷 사파리 버스·오프로드 택시·오프로드 어드벤처 등 5종의 프로그램을 현장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인의 개성 있는 차량을 전시하고 교류하는 카밋(Car Meet)과 RC 체험·스티커 사진 촬영·인형 뽑기 등을 할 수 있는 플레이존이 마련되어 있으며, 푸드 트럭, 스탬프 투어 또한 함께 운영된다. 또 삼성 모빌리티 뮤지엄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왕복 셔틀 버스가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 미디어 아티스트 창작 지원

VH 어워드 5팀에 제작비·전시 기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에도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에 대한 창작 지원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전인 '제7회 VH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된 5팀에는 작품 제작비와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아티스트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특별 언급' 부문도 신설했다. 내년 6월에는 최종 선발된 5팀 가운데 국제적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그랑프리 1팀을 선정하고 상금 3만 달러를 추가로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 작품은 내년 하반기부터 스위스 바젤의 하우스 오브 일렉트로닉아트,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싱가포르 아트 위크, 현대



제6회 VH 어워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전시 전경.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북 캠퍼스에 위치한 비전홀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시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협업해 온라인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6월에는 최종 선발된 가운데 그랑프리 1팀을 선정해 상금 3만달러를 추가 수여한다.

/양성운 기자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왼쪽에서 6번째)이 지난 22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린 '26년도 전기공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한전, 전기공학 장학생 107명 선발

2005년부터 총 1580명 장학금 지원

한국전력(한전)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전력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선다. 한전은 지난 22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26년도 전기공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기공학 장학생'은 전국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장학사업이다. 장애인·학생 가정·다자녀 등 가정형편과 학업성적, 수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8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전국 51개 대학교의 전기공학

전공 장학생 107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특히 한전은 대졸 수준 신규 채용 시 전기공학 장학생에게 선발일로부터 졸업 후 3년 이내 기간 동안 서류 전형 면제 1회 혜택을 부여한다. 장학금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원조를 넘어 실제 채용까지 연계되는 우수 인재 확보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전 세계는 전력을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으로 주목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 속에서 전력 분야 핵심 인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사장은 선발된 장학생들을 격려하며, 미래 국가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전북은행 목련회, 국립묘지 가꾸기 봉사

임실호국원 묘역 1549기 태극기 게양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는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립임실호국원에서 2026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은행 여성 임직원으로 구성된 목련회 회원 및 자녀 30여명은 지난 23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321~322구역의 묘역 총 1549기에 직접 태극기를 꽂고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2017년부터 전북은행과의 결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립임실호국원에서는 목련회

회원과 자녀들을 위해 현충탑 참배, 동영상 시청 등을 제공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해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한다는 의미다.

김태희 전북은행 목련회 회장은 "올해에도 자녀들과 함께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와 호국보훈의 의미를 공유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돼 보람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지역사회에 나라사랑 정신의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231@